



보도자료

2003.4.20(日) 14:00시 이후 보도

대통령
홍보비서실
춘추관 TEL 02-770-2564

담당부서: 홍보연설비서실

비서관: 윤태영

☎: 770-2552

노 대통령, 부활절 축하메시지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오후 서울 월드컵 상암경기장에서 열린 부활절연합예배 및 기독교 문화예배에 부활절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대통령 메시지

부활절을 맞아 모든 교회와 성도 여러분에게 기쁨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 모두에게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의를 위해 자신을 버리는 희생과 헌신, 나아가 분열과 갈등을 녹이는 화합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부활의 참뜻을 마음깊이 새길 때, 통합과 희망의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한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앞서나가고 후발개도국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안팎의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면 우리는 다가올 동북아시아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을 한데 모으면 기적을 이루어내는 역량과 저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참여정부는 국민과 함께 통합과 개혁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것입니다. 나아가 북한 핵 문제를 반드시 대화로 해결하여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로 가는 초석을 놓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평화'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모든 성도와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